

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		
담당 부서	도로국	책임자	팀 장 윤종빈 (044-201-4130)
	디지털도로팀	담당자	사무관 백승현 (044-201-4149) 주무관 김강산 (044-201-3935)
보도일시	2022년 11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지능형교통체계(ITS) 핵심가치는 “안전”

### - 교통류 스마트제어서비스 사업 발굴·시범사업 착수 -

□ 국토부통부(장관 원희룡)는 ITS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통류 스마트제어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사업을 착수\*한다고 밝혔다.

\* (사업기간/사업비) '22.10~'23.3 예정 / 45억원

○ 이번 사업은 ITS를 기본기능(교통정보 수집·제공) 외에도 안전에도 접목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□ ‘교통류 스마트제어서비스 사업’은 교통량이 많은 일반국도 구간에 도로 전광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연속 설치하고 전방정지차량·낙하물·작업 구간 경고, 전방통행속도 등 안전서비스 5종을 차선별 운전자에게 선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.

< 5종 안전서비스 개요도 >



- ① 전방 정지차량 경고, ② 도로낙하물 경고, ③ 도로 작업구간 경고,
- ④ 전방 통행속도 제공, ⑤ 저속 주행차량 경고 서비스 등

- 미국·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국내에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다.
- 사업구간은 화물차 등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토된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IC~신대교차로 10.2km 구간\*에 시범 구축될 예정이며, 국토부는 시범운영 및 평가를 통해 사고감소·혼잡완화 등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  - \* 왕복 6차로, 연평균교통량(75,835대/일)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ITS는 교통정보·수집 등의 기본기능 외에도 스마트제어서비스처럼 첨단기술과 안전이 결합하여 운전자 안전 등 국민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” 이라면서,
  - “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까지('23.3월 예정) 구축 완료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첨단화된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